

우정 칼럼

빌 그로스 우표전시관

이 종 탁*

미 국립우정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쉼 없이 바뀌어 돌아가는 일련의 숫자가 있다. 209 days 12 hours 8 mins 3 secs, 새 우표전시관 개관일까지 남은 날짜와 시간 표시다. 그 옆에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도 보인다. 전시관 개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한껏 끌어보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올 9월 완공 예정인 새 우표전시관은 2009년 9월 미국의 갑부 빌 그로스(68)가 우정박물관에 기부한 800만 달러(81억 원)를 기반으로 세워진다. 기부자 이름을 따 ‘윌리엄 H 빌 그로스 갤러리’라 이름 붙여진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표전시관이 될 전망이다. 개관에 맞춰 세계적 희귀 우표를 다수 전시한다는 계획도 서 있어 우정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미국 우정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된 빌 그로스는 누구인가. 그의 공식 직함은 세계 최대의 채권투자기관인 핼코(PIMCO)의 CIO(최고투자책임자)다. 국내에도 번역된 ‘채권투자란 무엇인가’ ‘채권투자의 비밀’ 등의 책을 쓴 금융전문가로 ‘채권왕’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총 재산이 22억달러(2조 4천억 원)로 2011년 미 포브스지가 선정한 부자 서열에서 미국내 206위, 세계 564위에 랭크된 인물이다. 재산을 포함해 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파워 인물에서는 세계 51번째로 꼽힌다. 그가 운영하는 토털리턴 펀드는 자산규모가 지난해 2700억 달러를 넘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펀드로 평가되고 있다.

* 경향신문 출판국장, jilee@kyunghyang.com

이렇게 돈 많고, 또 돈 잘 버는 사람이니 공공 박물관에 800만달러쯤 기부하는 게 무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아닌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나온 듀크대에 2,350만달러, 시민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에 2,500만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그 외에 병원이나 연구소 같은 곳에도 수천만달러를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우정박물관에 우표전시관을 지으라고 돈을 내놓는 것은 분명 특별하다. 미국의 그 많은 갑부들 중에 우정발전을 위해 쓰라고 거액의 기부를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나 떠올려보면 답이 나온다. 그렇다. 빌 그로스는 기부왕이면서 전문 우표수집가인 것이다. 그것도 보통의 우표수집가와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가다. 대개 수집가는 수집 자체에 몰두하지만 빌 그로스는 수집을 투자 개념으로 보아 팔고 사고를 번갈아한다. 수집의 즐거움도 누리지만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되팔아 돈을 버는데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표투자수익률은 아주 양호한 편이다. 2009년 10월 그는 소장우표 중 페니 블랙과 같은 영국 희귀우표 200점을 경매에 내놓아 910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이때 내놓은 우표는 그가 1998년부터 3년에 걸쳐 250만달러를 주고 구입한 것들이다. 구입한 지 대략 10여년만에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이 때 그는 “우표투자가 주식투자보다 낫다”는 인상 깊은 말을 남겼다.

빌 그로스가 우표수집가로서 명성을 떨친 것은 이보다 앞선 2005년 11월이다. 당시 그는 비행기 디자인이 뒤집혀 ‘거꾸로 된 제니’라 불리는 유명한 에러우표를 경매에서 297만달러에 구입한 뒤 또 다른 희귀우표인 1868년산 Z그릴 우표와 맞바꾸는 빅딜을 했다. 이로써 그는 19세기 미국에서 발행된 우표를 빠짐없이 손에 넣은 세 번째 수집가가 되었는데, 19세기 우표컬렉션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3백만달러를 쓴 것이다.

채권왕이 우표광이기도 하다는 점은 미국인들에게도 흥밋거리다. 워싱턴포스트는 ‘억만장자 우표수집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빌 그로스가 우표수집가(우표투자가)가 된 과정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그가 우표에 눈을 뜬 계기는 어머니 덕분이다. 그의 모친은 아들이 대학갈 때 학비에 충당하려고 우표를 사 모았는데, 빌 그로스가 대학생이 되어 팔려고 보니 매입가보다도 떨어져있었다. 헐값에 팔자니 아까워 우표를 갖고 있던 빌 그로스는 90년대 채권 투자업을 하면서 우표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작했다. 어느 우표가 과거 경매에 나와 얼마에 팔렸는지, 예

를 들면 1928년에는 얼마, 53년과 74년, 92년에는 얼마에 낙찰되었다는 식의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그 낙찰가격이 당시 경제성장률에 비추어 어떤지 살펴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고른다. 그런 다음 그 물건 소장자가 팔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러니 싸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기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듀크대 심리학과를 나와 UCLA에서 MBA를 딴 그가 게임천재의 기질을 발휘한 것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라고 한다. 수학교수가 쓴 블랙잭 확률책을 읽고 200달러로 시작해 사흘만에 1만달러를 딴 것이다. 달러가 이길 확률이 높으면 베팅을 조금 하고, 자신이 이길 확률이 높으면 베팅을 많이 하는 작전, 이런 수학적 사고와 리스크 관리기법이 지금의 채권투자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빌 그로스는 지금도 수천만달러어치의 우표를 소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계 큰손이 전문우표수집가이면서 우표투자가라는 점은 우표계, 나아가 우표를 설립기반으로 하는 우체국 홍보에 큰 플러스 요인이다. 우리나라에 빌 그로스 같은 인물이 없다는 게 아쉽다.